

디지털타임스 뉴스인쇄

기사 주소: http://www.dt.co.kr/contents.html?article_no=2014010602011676650002

빛 이용 암 치료기술 개발

안경애 기자 naturean@dt.co.kr | 입력: 2014-01-05 19:41

포스텍과 미 하버드의대 공동연구팀이 나노그래핀-히알루론산 접합체를 이용해 빛으로 암을 치료하는 기술을 개발했다.

한세광 포스텍 교수(신소재공학과)와 정호상 박사과정생 연구팀은 하버드의대 웰만광의약센터와 공동으로, 나노미터 크기 그래핀을 히알루론산과 접합해 암에 걸린 동물모델의 피부를 통해 투입한 후 근적외선을 쬐어 암 조직을 괴사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.

이 연구결과는 나노 분야 학술지인 'ACS 나노' 3일자 온라인판에 소개됐다.

한 교수팀은 최근 3년간 나노의약용 생체재료 분야에서 3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고, 30여건의 특허를 출원하거나 등록했다. 특히 이번 연구결과는 빛의 열을 이용해 암 조직만 선택적으로 치료할 수 있어 기존 항암치료의 부작용을 크게 개선해줄 전망이다.

한 교수는 "빛을 이용한 당뇨병 치료기술에 이어 암 치료기술도 개발했다"며 "하버드의대와의 지속적 공동연구를 통해 빛을 이용한 난치성 질환 치료기술 개발에 전력을 다할 것"이라고 말했다.

안경애기자 naturean@

[저작권자 ©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]

출력시간: 2014-01-06 14:40:41